

평창농악축제 개최, 평창의 흥과

장단으로 가을의 한마당을 울린다

평창군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평창군 장평리 평창 농악축제장 일원에서 '흥겹게 울려 퍼지는 우리 소리! 신명 나게 즐기는 평창의 가을'을 주제로 '2025 평창농악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전통 농악의 장단과 흥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평창 고유의 농악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 평창 산골푸드 먹거리 코너, 농산물 장터가 펼쳐진다.

축제 첫날 개막식에서는 평창전통농악보존회의 지신밟기 풍물 퍼레이드가 농악 축제장 일대를 행진하며 축제의 막을 올리고, 이후 지역 농악단과 청소년 예술동아리, 주민 참여팀이 함께하는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장단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축제 기간에는 ▲전국 농악 공연 ▲마당극 ▲전통 농기구 전시 ▲체험 마당(오징어게임, 전통 놀이, 민속 체험 등) ▲전통음식 장터(평창카세, 장작 구이 등) ▲예술인 버스킹 공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방문객이 직접 장단을 익히고 악기를 연주해 보는 농악 체험존과 전통 농기구를 활용한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국 평창군수와 김태웅 농악축제위원장은 "평창농악축제는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전통문화 축제"라며 "농악의 흥과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축제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2025 속초음식축제

(마썸다, 속초) 개최

속초시는 오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3일간 속초 엑스포터워 광장 일원에서 속초의 맛과 멋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5 속초음식축제(마썸다, 속초)'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속초대표 음식 홍보, 착한 가격, 친환경 축제를 핵심 가치로 삼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지속 가능한 미식 축제로 마련됐다.

축제 현장의 23개 부스에서는 오징어순대와 막국수, 닭강정, 장칼국수, 감자옹심이, 물회, 코다리 등 속초 7미를 비롯해 흥게 쌀국수와 명태 닭강정, 감자 풍두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다채로운 메뉴들이 시민과 관광객들을 찾아가는다.

속초시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친환경 대화용기 제공 및 반납 부스 운영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형 축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개막일인 24일(금)에는 시장, 시의원 등이 함께하는 대형 닭강정 썰기 개막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200여 명의 관객에게 이를 나누는 행사도 열려 속초 대표 먹거리의 상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 코믹 마술쇼, 트로트 공연, 감성 버스킹, 속초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아카이브 푸드관, 야간 조명 연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전국체전 종합 6위, 김진태 지사 "강원 체육 르네상스!"

수영 황선우 선수, 네 번째 MVP 영예

체육예산 지속 확대, 현장응원 결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6년 만에 종합 6위를 기록했다. \* 메달순위 4위

이는 당초 목표였던 7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성적으로 1999년 제80회 대회 이후 26년 만에 자력으로 달성한 쾌거다. 총 메달 253개(금 85, 은 73, 동 95), 총점수 40,042점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는 48개 종목에 선수

1,184명, 임원 299명 등 총 1,483명이 참가했고, 특히 수영, 체조, 볼링, 댄스스포츠, 당구, 레슬링 등 개인종목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번 종합 6위는 단순한 순위 상승이 아니다. 그간 체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강원에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낸 역사적 성취이며, 선수와 지도자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의지의 결실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

특별자치도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왔다. '23년 12위였던 강원'이 작년 7위에 이어 올해 6위로 급상승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과 지원 확대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2년 900억 원 수준이던 체육 예산을 올해 1,200억 원 이상 규모로 대폭 늘렸고, 도 체육회 예산은 170억 원에서 250억 원 수준으로 1.5배 확대했으며, 시·군의 실업팀 창단지원금을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도내 전문체육시설 확충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만약 안정적인 훈련 기반이 마련된다면, 강원은 전국 손가락 안에 드는 체육 특화 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선수와 팀이 훈련하고 싶어 찾게 만드는 강원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 체육 르네상스! 26년 만에 최고 성적 6위 달성에 함께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계속해서 강원 체육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통합 RPC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원주시 통합 RPC 건립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도 최종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쌀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 체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시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세부 설계와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2026년 착공해 2027년까지 저장·가공시설을 비롯한 시설현대화

를 완료하고, 지역 농협 및 원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쌀 품질,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생산-가공-유통-판매'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원주 쌀의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브랜드 쌀인 토토미가 전국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통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2025 묵호항 수산물 축제'10월 24일 개막



동해시는 묵호항의 신선한 수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 묵호항 수산물 축제'를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묵호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10월 24일 오후 6시, 묵호항 특설무대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신유, 못난이 삼형제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어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맨손잡기 체험 ▲통발어업 체험 ▲어선 승선 체험 ▲수산물 시식행사 ▲노래방 가왕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되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대표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반짝 경매와 수산물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먹거리 ZONE도 운영되어, 지역 수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성대 해양수산과장은 "묵호항 수산물 축제는 우리 지역 수산물의 신선함과 맛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강원권 최대 항만이자 어항 복합기능을 갖춘 묵호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춘천시, 춘천 막닭축제 ‘국제관’ 문화로 통했다

세계 놀이·음식 체험으로 시민과 유학생 어우러진 국제교류의 장

KOICA·명예통역관 등 참여, 춘천의 열린 도시 이미지 확산



막국수와 닭갈비 향이 가득한 공정한 한 칸에 여권 모양 리플렛을 든 시민들이 '출입국 심사'를 받고 세계로 떠났다.

지난 16~19일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기간에 운영된 '국제관'이 국내외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국제관은 지역 대학 유학생, KOICA, 명예통역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꾸민 '시민참여형 글로벌 축제'로 춘천의 열린 도시 이미지를 세계 속에 각인시켰다.

국제관은 △Check-in 안내존 △Fun with Cities 교류도시 체험존 △Taste the World 세계음식 시식존 △세계와 함께하는 춘천 이야기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각국의 유학생과 시 명예통역관들이 참여하며 국제

관 운영에 풍성함을 더했다.

국제관의 첫단계인 'Check-in 국제관 안내' 부스에서는 참여자들이 여권 형태의 리플렛을 받아 세계로 떠나는 출입국 심사를 받는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건 춘천시와 교류 중인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콜롬비아의 놀이들을 체험할 수 있는 'Fun with Cities' 교류도시 체험존이었다. 에티오피아의 '만갈라', 이탈리아의 '트리스트', 콜롬비아의 '라나' 등 세계 각국 놀이가 이어지고, 국기 팔찌와 컬러링 카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스탬프 3개를 모은 이들은 'Taste the World!' 코너로 향해 우즈베키스탄 오쉬, 라오스 숭사, 이란 란 등 유학생이 직접 준비한 세계음식 시식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세계와 함께하는 춘천 이야기' 부스에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진전과 함께 KOICA(코이카) 및 강원개발협력센터가 국제협력 관련 상담과 홍보를 진행했다.

국제관 프로그램 외에도 축제 메인 무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글로벌 친구들'의 K-POP과 태권도 공연이 흥을 돋웠고 강원대 유학생들의 전통공연도 이어졌다.

김민석 기자

제16회 강릉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제16회 강릉시민생활체육대회가 오는 25일(토)부터 26일(일), 2일간 개최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스포츠 도시 강릉'의 위상에 걸맞게, 강릉시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도내 상위권으로, 걷기·배드민턴·탁구·게이트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평일 저녁과 주말마다 공원과 체육시설 곳곳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남부권 수영장, 유전동 복합복지 체육센터를 비롯한 종합운동장, 강릉아레나, 강릉아이스링크, 테니스장, 파크골

프장 등 생활권역별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지변을 확대하고 있다.

강릉시체육회가 주최하여 각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도 강릉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펼치며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25일(토) 오전 9시 강릉아레나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29개 회원 단체 소속 1만 5천여 명이 이틀간 강남축구공원을 비롯한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강릉시 체육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즐기시길 바라며, 나아가 강릉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